

기념사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약동하는 좋은 절기와 같이 1994년 개혁불사 22주년을 뜻 깊게 맞이하며, 기념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종도와 함께 유익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22년 전 오늘은 개혁회의가 시무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종무를 시작한 날입니다. 1994년 3월 23일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3월 29일 구종법회와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를 거쳐 4월 13일 개혁회의가 합법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개혁회의는 정법종단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 민주화, 청정교단 구현,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5대 지표를 천명하였습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개혁회의의 5대 지표는 자주화, 민주화, 사회적 역할 확대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에 귀의하는 불교정화의 연속선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개혁정신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94년 개혁의 정신과 그 교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제34대 집행부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 등을 통해서 파사현정 정법구현의 개혁정신의 계승과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불사의 한계로 거론되는 ‘각종 선거로 인한 승가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중앙과 지역에서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종단개혁 22주년을 맞아 ‘94년 종단 개혁불사’의 전 과정을 정리한 『종단개혁 백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94년 종단 개혁과 함께 우리는 종단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단개혁 백서』는 자랑스러운 그 역사를 길이 남길 소중한 책임입니다. 백서를 통해 역사의 잘잘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비판해야 할 사람은 비판하고, 칭송해야 할 사람은 칭송하라.”¹⁾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서 노력하신 ‘94년 개혁불사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법등스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단 개혁불사는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 종단의 대작불사입니다. 모든 종도가 한마음으로 94년 개혁불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종단의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갑시다.

불기2560년 4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1) 『앙굿따라니까야』, 『뽕따리아 경』(A4:100)